

IT/전기전자 (Overweight)

1Q25 스마트폰 Re: 이구환신, 관세 전 풀린 수요에도 부진한 시장 성장

주요 포인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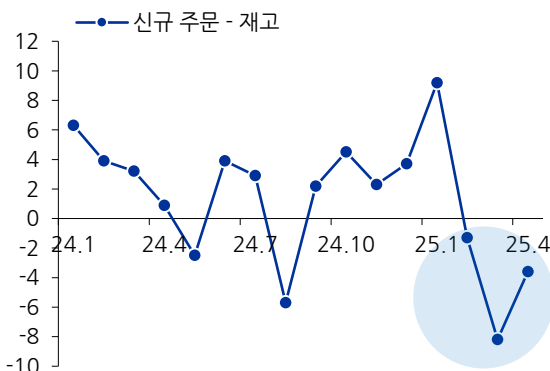
1 분기 아이폰의 Pull-in 수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비 0.5% 증가에 그침.

이구환신 보조금 효과로 1 분기 중국 내 스마트폰 출하량 전년비 9% 증가했지만, 4 월까지의 판매량은 전년비 Flat. 이구환신 보조금은 신규 수요를 이끌어내지 못함.

IT/전기전자 이주형_02)368-6190_jhlee2207@eugenefn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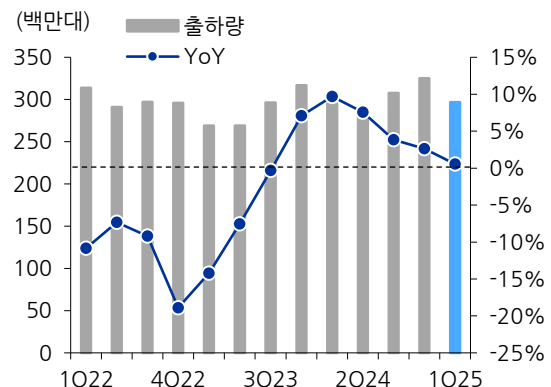
- 1Q25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2억 9,680만대로 전년비 0.5% 증가
- 1분기 애플 출하량은 전년비 11% 증가한 5,470만대로 미국 시장 내 선제적 Pull-in 수요가 존재했음을 보여줌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은 1% 미만 증가하며 소비가 좋지 않은 시장 상황을 시사
- 1분기 삼성전자의 출하량은 전년비 1% 증가한 6,060만대로, A 시리즈 등 저가형 스마트폰의 출하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. 10~20만원대 모델의 출하 비중은 지난해 14%에서 22%로 8%p 증가
- 이구환신 보조금 지급에 따른 영향으로 중국 내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비 9% 증가
- 이구환신 보조금 지급의 효과는 화웨이, 샤오미 두 브랜드에 집중되었으며 화웨이는 2021년 이후 역대 최대 분기 출하량인 1,510만대를 기록
- 애플은 대부분의 제품이 6,000위안 이상으로 이구환신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국 내 점유율 하락세 지속. 2 월말~3월 초 일부 유통 업체가 아이폰 가격을 낮춰 일부 모델을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켰지만, 춘절 이전 교체 수요가 충족된 상황 속 가격 인하의 효과는 제한적이었음
-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량은 춘절 이후 급락하며 결과적으로 2025년 1~16주차 스마트폰 판매는 전년비 Flat한 수준. 이구환신 보조금은 신규 수요 창출이 아닌, 기존 수요를 앞당기는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
- 트랜션은 2년래 분기 최저 출하량인 2,210만대를 기록하며 전년비 22% 감소. 현재 채널 내 재고가 많아 1분기 출하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

도표 1. 미국 ISM 제조업 신규주문 - 재고



자료: ISM, 유진투자증권

도표 2.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



자료: Tech Insights, 유진투자증권

갤럭시 S25 Edge 와 S25+ 비교 분석

S25+ 대비 두께와 무게를 대폭 감소시킨 Edge 모델 출시

5 월 13 일 출시된 갤럭시 S25 Edge 는 갤럭시 S25+ 모델과 비교해 두께와 무게에서 차별화를 이루어냈다. S25+와 동일한 6.7 인치의 디스플레이를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, 프레임 소재의 변화를 비롯한 경량화 노력에 따라 두께는 21%, 무게는 14% 감소했다. 이번 Edge 모델의 출시 **는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애플의 아이폰 17 에어를 견제하기 위한 선제 대응의 성격으로 파악된다.**

S25 Edge 는 올해 1 월 출시된 S25+ 모델과 비교했을 때 프로세서, 디스플레이, 메모리, 스토리지 용량 등 주요 스펙이 모두 동일하다. 다만, 디스플레이의 경우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2 에서 고릴라 글라스 세라믹 2 로 변경점을 두어 전면 유리의 강도를 개선하였다. 또한 프레임 소재를 기존 아머 알루미늄에서 티타늄 프레임으로 변경하며 경량화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.

경량화를 위해 배터리 용량과 카메라 모듈 다운그레이드

다만, 163g 의 가벼운 무게를 구현하기 위해 기타 주요 부품들의 다이어트 역시 수반되었는데, 기존 트리플에서 듀얼로 다운그레이드 된 **카메라 모듈과 배터리 용량이 이에 포함된다.** S25 Edge 는 S25+ 모델 대비 1,000mAh 줄어든 3,900mAh 의 배터리 용량을 갖는다. 이는 S25 일반 모델보다도 100mAh 적은 수준으로, 여러 매체에서도 주요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다.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의 아이폰 에어 모델 개발에서도 배터리 용량 확보가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파악되는데,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밀도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 적용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.

카메라 섬 설계에 따라 카메라 모듈 부분의 두께는 S25+ 보다 두꺼움

후면 카메라의 경우 기존 트리플 카메라에서 듀얼 카메라로 변경되며 3 배 망원 카메라가 제외되었다. 다만 기본 광각 카메라를 갤럭시 S25 울트라와 동일한 200MP 사양으로 탑재하며 다운그레이드라는 논란을 일부 상쇄하였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작에는 없던 카메라 섬의 설계로 인해 **카메라 모듈 부분을 포함한 두께는 S25+보다 더 두껍다.**

S25 Edge 모델의 판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, Slim 모델에 대한 트렌드가 다시 부상할 수 있을 것

S25 Edge 의 시작 가격은 149 만 6 천원으로 S25+의 135 만 3 천원보다 14 만 3 천원(약 10.6%)비싸다. 이는 프레임 소재의 변경 등 경량화에 따른 비용과 광각 카메라 스펙 상향 조정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. S25 Edge 의 얇고 가벼운 디자인이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으나, 대폭 감소된 배터리 용량과 높은 시작 가격, 높은 국내 시장 의존도에 따라 올해 생산량 목표인 300 만대가 추후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. 반면, S25 Edge 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다면, 경량화를 기반으로 한 세트 단가 인상이 가능해지며 얇은 스마트폰에 대한 설계 트렌드가 다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.

도표 3. 갤럭시 S25 Edge와 S25 시리즈 비교

구분	S25 Edge	S25	S25+	S25 Ultra
출시년월	2025.05	2025.01	2025.01	2025.01
디스플레이	6.7" 3,120 * 1,440 고릴라 글래스 세라믹 2	6.2" 2,340 * 1,080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	6.7" 3,120 * 1,440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	6.9" 3,120 * 1,440 고릴라 글래스 아머 2
AP	퀄컴 스냅드래곤 8 Elite	퀄컴 스냅드래곤 8 Elite	퀄컴 스냅드래곤 8 Elite	퀄컴 스냅드래곤 8 Elite
RAM(GB)	12	12	12	12
전면 카메라(MP)	12	12	12	12
후면 카메라(MP)	초광각 12 / 광각 200	초광각 12 / 광각 50 3배 망원 10	초광각 12 / 광각 50 3배 망원 10	초광각 50 / 광각 200 3배 망원 10 / 5배 망원 50
배터리(mAh)	3,900	4,000	4,900	5,000
무게(g)	163	162	190	218
두께(mm)	5.8	7.2	7.3	8.2

자료: 언론종합, 유진투자증권

도표 4. 갤럭시 S25 Edge vs. S25 일반모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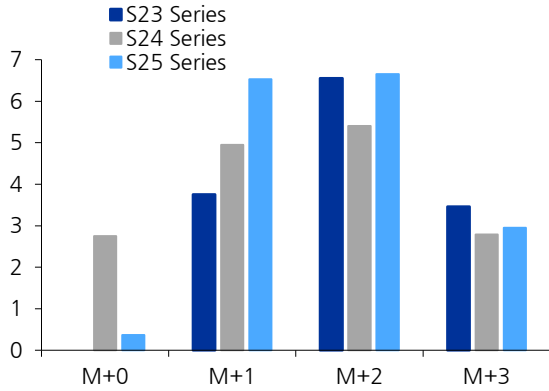
자료: 언론종합, 유진투자증권

도표 5. 아이폰 17 시리즈 유출 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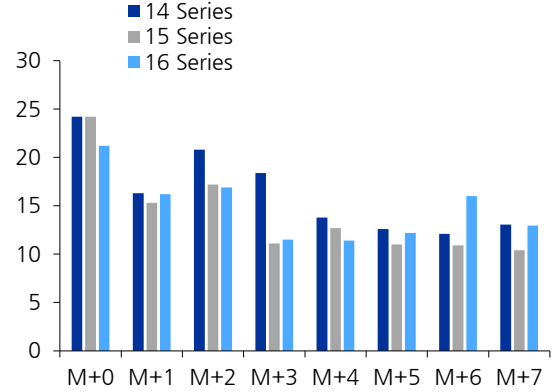
자료: 언론종합, 유진투자증권

도표 6. 갤럭시 S 시리즈 월별 출하량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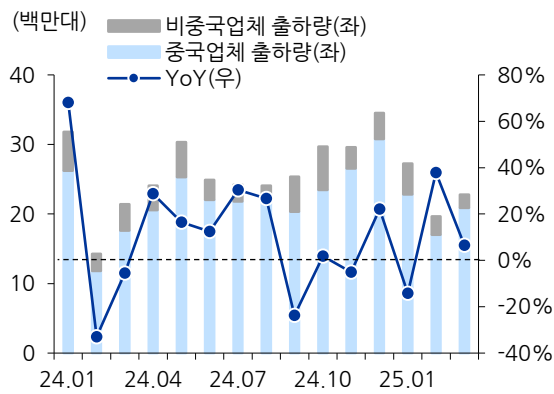
자료: Tech Insights, 유진투자증권

도표 7. 아이폰 월별 출하량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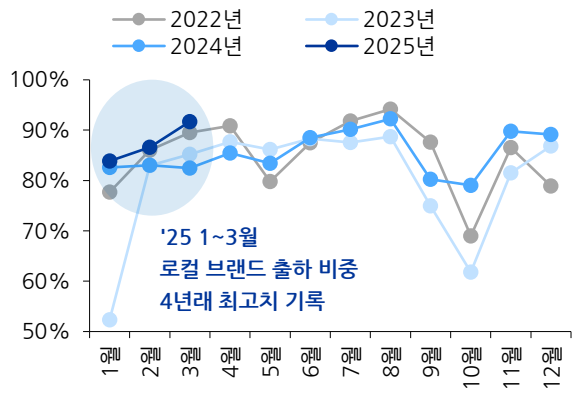
자료: Tech Insights, 유진투자증권

도표 8. 중국 월별 휴대폰 출하량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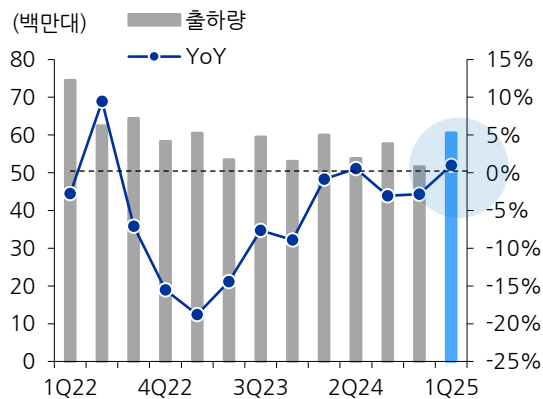
자료: CAICT, 유진투자증권

도표 9. 중국 로컬브랜드 월별 출하 점유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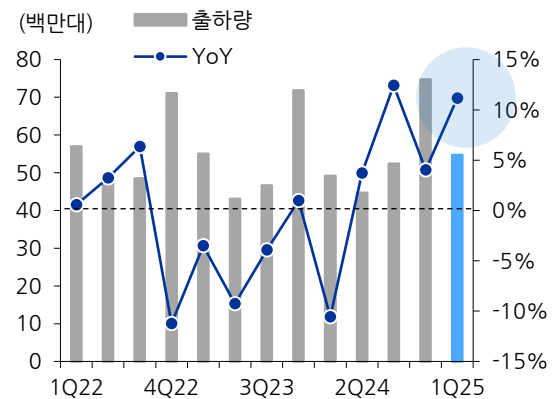
자료: CAICT, 유진투자증권

도표 10. 삼성전자: 저가모델 출하 확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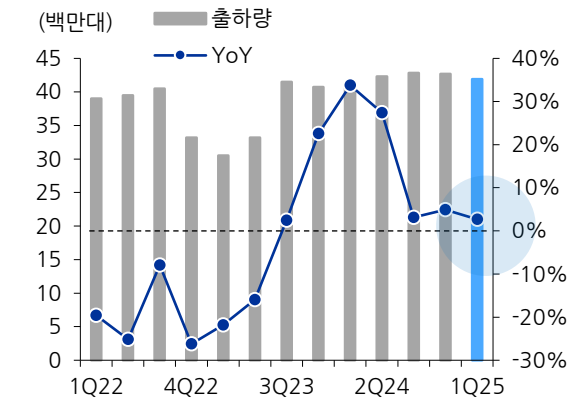
자료: Tech Insights, 유진투자증권

도표 11. 애플: 관세 전 선제적 Pull-in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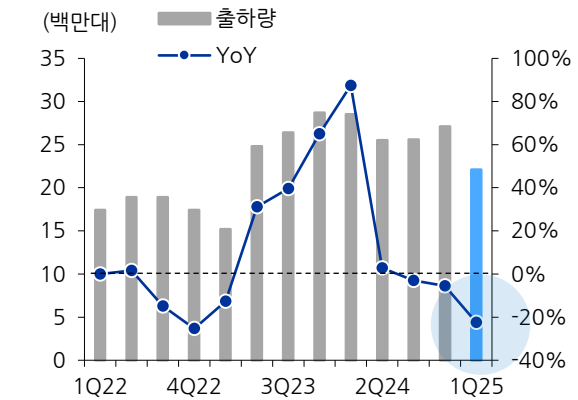
자료: Tech Insights, 유진투자증권

도표 12. 샤오미: 이구환신 보조금 수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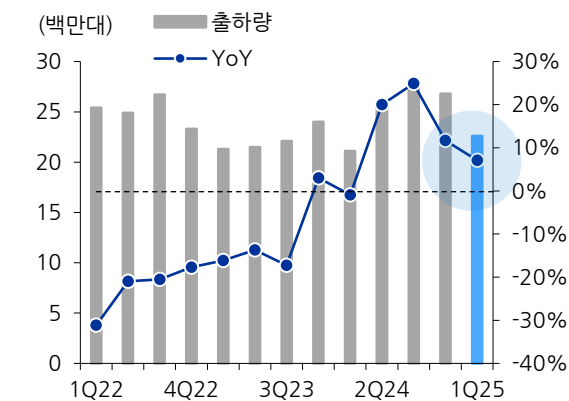
자료: Tech Insights, 유진투자증권

도표 13. 트랜션: 재고 부담으로 전년비 -22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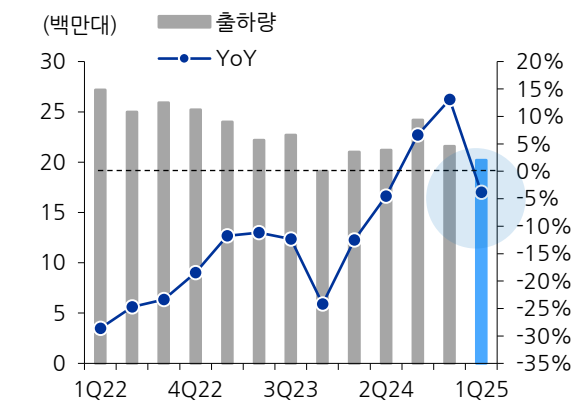
자료: Tech Insights, 유진투자증권

도표 14. 비보: 인도 시장 내 강세 지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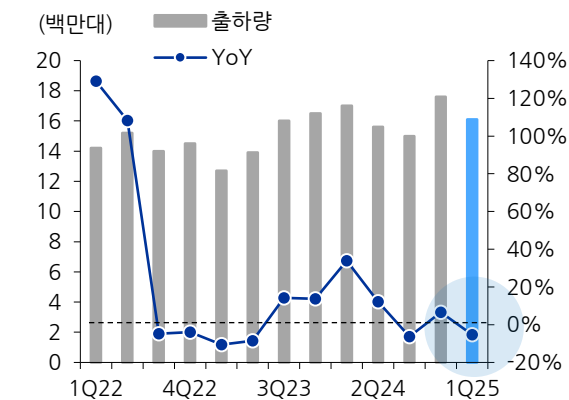
자료: Tech Insights, 유진투자증권

도표 15. 오포: 재고 건전화를 위한 보수적 출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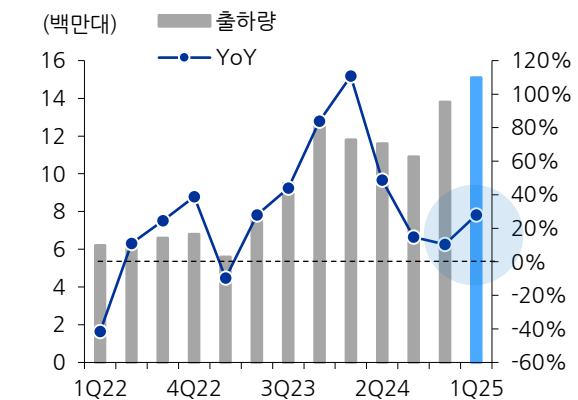
자료: Tech Insights, 유진투자증권

도표 16. 아너: 재고 건전화를 위한 보수적 출하



자료: Tech Insights, 유진투자증권

도표 17. 화웨이: 이구환신 최대 수혜, 21년 이후 분기 출하량 최대치 경신



자료: Tech Insights, 유진투자증권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
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
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
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
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

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

투자기간 및 투자등급/투자의견 비율

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: 12개월 (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)

당사 투자의견 비율(%)

· STRONG BUY(매수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50%이상	0%
· BUY(매수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15%이상 ~ +50%미만	96%
· HOLD(중립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0%이상 ~ +15%미만	4%
· REDUCE(매도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0%미만	0%

(2025.03.31 기준)